"민주화의 심장 광주, 이젠 한국의 미래성장 중심도시로 키우자"

광주시장 유력 후보 인터뷰 - 강운태 광주시장

6·4 지방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유력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에 나서는 유력 후보군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과 주요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 등을 들어본다.

특히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전격적으로 통합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면서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구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됐다.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력 후보군들의 지역발전 청사진을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만 꼽는다면.

▲첫째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광역의원·기초의원 등 광주 공동체를 책임질 사람은 무엇보다 일을 잘해야 하고, 광주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인재의 양성도 중요하다. 둘째로는 발전 방향을 잘 정해야 한다. 미래까지 시민행복을 결정하는 희망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광주·전남은 가야 할 방향이 없다. 도와주고 싶어도 선뜻 와 닿지 않는다"고 한탄하신 적이 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자랑스런 도시,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비전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셋째는 참여의 시정이다. 시민들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자치공동체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한 사람보다는 열 사람, 열 사람보다는 백 사람이 뜻을 모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광주시정 가운데 잘 되고 있는 것과 잘못되고 있는 것을 한가지씩 꼽는다면.

▲잘 되고 있는 분야는 많지만, 가장 먼저 '풍요로운 경제공동체'의 진입을 꼽을 수 있다.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 만년 소비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 수출주도형 생산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광주의 수출액은 159억 달러로, 부산을 앞질렀고, 대구와 대전에 비해서는 각각 2.3배와 4배가 높다. 고용률도 58.2%였다. 서울, 인천 다음으로 특·광역시중 3위였다. 취업자수 증가율도 특·광역시 가운데 단연 1위, 전국적으로는 2위였다. 이밖에 광주가 생산도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기관의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반면, 아쉬운 점은 질서의식이 약한 것이다. 교통사고율이 전국의 대도시 가운데 높고 규범, 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다소 약한 게 흠이다.

이 때문에 유언비어나 흑색선전이 빠르게 내부에 전파되고 이로 인해 내부 갈등과 균열이 일어나곤 한다. 광주발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전격적으로 통합 신당이 탄생하게 되면서 경선이 곧 당선 구도가 됐다.

광주의 청사진 풍요로운 경제도시 시민참여형 행정시스템 복지안전망 구축 목표

▲양 세력이 신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왜냐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점이 비슷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의 입장에서, 또 대통령 중심제 아래에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분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인 가운데서도 저는 유일하게 줄곧 지방선거 전 대통합을 주장해왔고, 다행히도 통합이 돼 크게 환영하고 지지한다.

-통합 신당의 가장 바람직한 광주시장 공천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결정하는 것이 새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통합 당원과 국민이 뽑는 소위 '상향식 공천'인 국민참여경선이 되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다. 희망하는 유권자가 신청하면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통합 신당 지도부가 결정하겠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전략공천 또는 100% 여론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략 공천은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에서 시민들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략공천은 생각할 수 없다. 100% 여론조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여론조사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정확성·공정성의 담보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KTX 광주역 진입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KTX 광주역 진입 문제는 지역민 모두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쟁의 도구가 되어선 절대 안 된다. 무엇보다 KTX 이용은 시민의 편리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광주역 KTX 수송률이 송정역 보다 높다. 그런데 송정역만 생각하고, 광주역 진입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시민을 위한 KTX라면 광주 시민 누구라도 최소한의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공천 방법은 당원과 국민이 뽑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전략공천 시민이 용서안해

-민선 5기를 접으면서 아쉬었던 점은.

▲지난해 7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는 광주공동체의 가장 큰 목표를 우리가 쟁취한 역사적 쾌거였다. 초기에 발생했던 실수를 즉시 바로잡아 아무런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그런데도 '정부 보증서 가필' 문제로 불법을 저지른 집단으로 매도되고 많은 비난이 쏟아져 광주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와 이미지 실추를 가져오게 된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회의원 154명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지원을 규정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까지 통과돼 실추된 시민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재선에 성공하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단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내년이면 호남고속철도 KTX가 개통되고, 광주의 자랑인 아시아문화전당이 마침내 개관한다. 지구촌 대학생들의 축제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열린다. 광주의 대내외적 환경과 위상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광주를 에너지 자유도시로 만들고, 문화를 가지고 돈을 버는 아시아 대표 문화콘텐츠 허브로 만들고 싶다. 광주를 UN이 지정하는 인권도시로 만들 것이다. 지구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도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도시로 변화시키겠다.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통합 신당의 경선에서 만나게 될 경쟁자들을 평가해 달라.

▲윤장현 위원장은 죽마고우다. 시민운동의 대부로 시민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사회 소외층을 묵묵히 돌봐온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큰 인물이다.

이용섭 의원은 고시와 고향 후배다. 늘 친형제처럼 아껴온 후배 중 한 사람이다.

국회의원 초선 때인 지난 2010년 광주시장에 도전해 (저랑) 한번 맞붙었고, 또다시 이번에 도전해 경쟁을 하게 됐다. 사실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광산구민들이 4년간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으니, 중앙에서 큰 역할을 다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왕 경쟁에 나선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 상대방을 존중하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병완 이사장은 노무현 정신을 몸소 실천해온 분이다. 노무현 주의자답게 반칙 없는 세상, 특권 폐지, 지역 균형발전을 신념처럼 추구해 온 훌륭한 실천가로 평가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요 공약

인권도시 등 민선 5기 사업 연계성 감안 정책 발굴

강운태 광주시장은 재선을 통해 광주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 시민참여 행정시스템 등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만큼 주요 공약보다는 민선 5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연속성과 발전성 등을 감안한 핵심정책을 발굴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우선 민·관 합동정책 워크숍 상시운영과 마을공사 '시민감독관제' 실시, 생활민원 현장대화 활성화, 시민여론을 수렴한 정책결정 및 추진 등의 시민참여 행정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계속의 '인권도시 광주'로 우뚝 서기 위해 ▲광주 국제인권대학 설립 ▲인권피해자 트라우마 센터 설립 ▲광주교도소 부지에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 ▲국군 통합병원 부지에 5·18 기념관 건립 ▲빈곤국 지원을 위한 '광주 희망프로젝트' 추진 ▲명예로운 자원봉사도시 운동 등도 주요 핵심 정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경제분야로는 가계소득 3위권의 잘사는 도시 건설, 일자리 15만 개 창출로 고용률 1위 도시 달성, 세계적인 에너지 자유도시 기반 조성, 2017년까지 수출 400억 달러 달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 과학기술연구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쾌적하고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KTX 개통에 따른 호남권 교통 허브 구축, 국제안전도시 공인,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등이 추진되며, 노인·장애인 경제·사회적 자립활동 지원과 주거복지 확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 노숙자나 굶는 시민 없는 희망도시 사업 등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도 핵심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관광객 300만 명 유치, 광주읍성 복원, 관광 인프라 및 체육시설 확충, 대규모 국제체육대회 개최 등 관광·문화산업 발전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강 시장 측은 이달 말까지 주요 공약 및 세부공약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면, 출마선언과 함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걸어온 길

내무부·농림부장관 … 16·18대 국회의원 역임

1948년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에서 태어났다.

광주 수창초등학교, 광주동중을 거쳐 함평 학다리고등학교를 다니다 대입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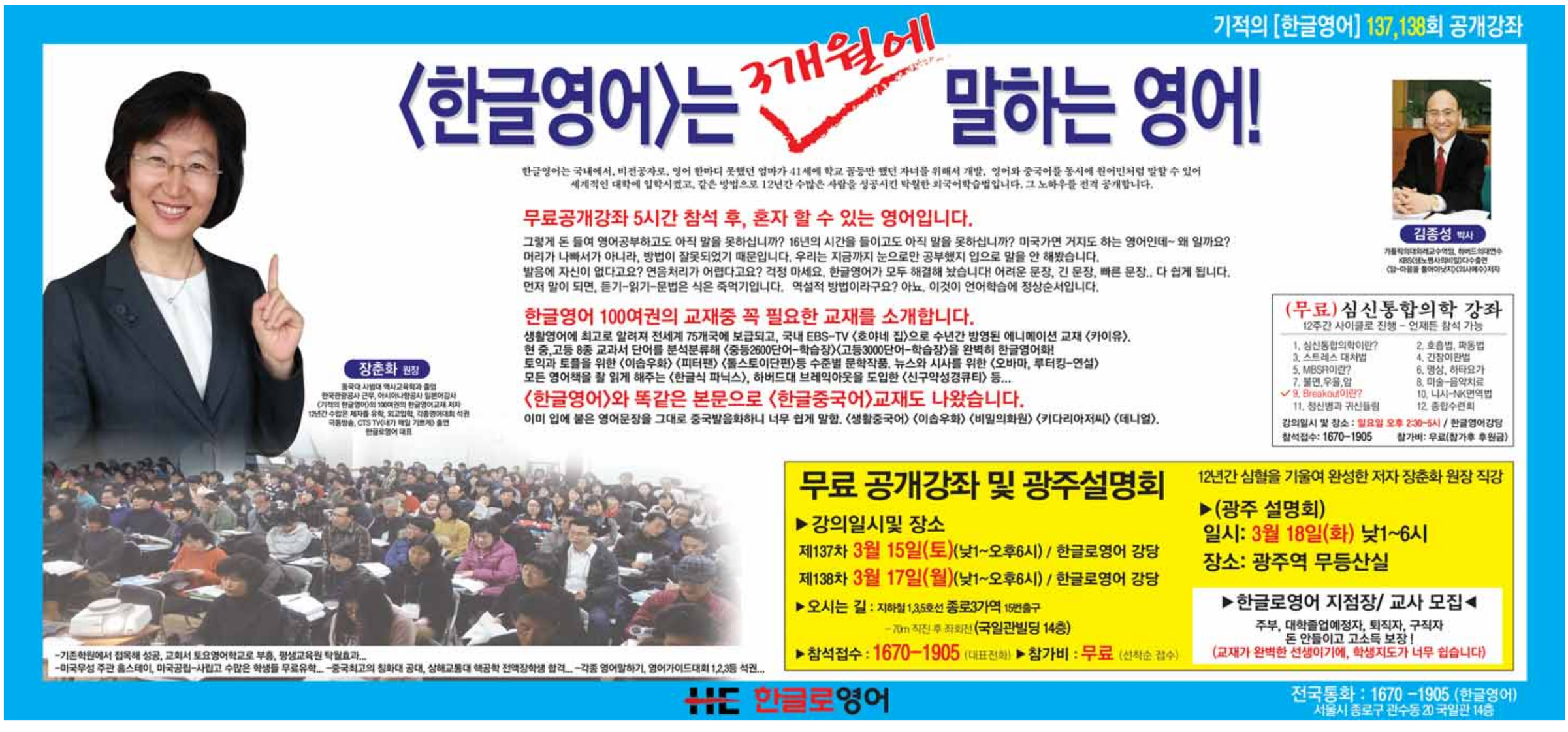
1972년 제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지방행정 주무부처인 내무부에서 예산계장, 지방기획과장, 지역경제국장을 역임했다.

40대 초반에 순천시장(1989~1990년)과 청와대 내무행정 비서관을 지냈고, 40대 중반에는 임명직 광주시장(1994~1995년)으로 재임했다. 광주시장 재임시절 광주비엔날레와 김치축제를 만들었고, 5·18국립묘지 조성과 삼성전자, LG 등 기업 유치를 통해 문화와 첨단의 도시 광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농림수산부장관(1995~1996년)과 내무부장관(1997년)을 지냈고, 내무부장관 시절 5월1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다.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친 뒤 제16대 국회의원(2000~2004년)으로 정계에 입문해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광주선거대책위원원장을 역임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제18대 국회의원(2008~2010년)을 지내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민선 5기 광주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무등산국립공원 승격,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광주 새 야구장 건립,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